



##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The Transmission of Ancient Joseons Founding Myth and the Perception of Ancient Joseon

---

저자 (Authors)	김성환 Kim Sunghwan
출처 (Source)	<a href="#">동북아역사논총 (47)</a> , 2015.3, 11-56(46 pages) <a href="#">Dongbuga Yeoksa Nonchong (47)</a> , 2015.3, 11-56(4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북아역사재단</a>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6657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66576</a>
APA Style	김성환 (2015).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47), 11-5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10 16:5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김성환 | 경기도박물관 학예부장

## I. 머리말

고조선이 우리 역사의 시원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상한과 관련한 논의를 비롯하여 영역·도읍지, 고조선의 범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고조선 멸망 이후 건국신화와 전승의 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고려 후기의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고조선 건국신화는 고조선과 관련한 현전 最古의 자료임에 분명하지만, 1차 자료로 활용하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 고조선 건국신화는 고조선 이후 각 시대의 정치·사회·문화상과 연동하면서 많은 변천이 있었다. 두 자료 역시 그중의 일부였다. 특히 《삼국유사》의 편목 중 하나인 ‘고조선[왕검조선]’은 고려 후기의 신진사대부들이 주축이 되어 건국된 신왕조 ‘조선’의 상대 개념이 아니라, 魏滿朝鮮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제왕운기》에서도 위만조선에 앞서 단군의 ‘전조선’과 기자의 ‘후조선’을 편목하고 있다.

※ 투고: 2014년 8월 13일, 심사 완료: 2015년 1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2월 23일

이제까지 고조선과 관련한 역사인식 측면의 연구는 그 시조인 단군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sup>1)</sup> 여기에는 단군·기자·위만의 삼조선 체계가 정립된 조선 초기 이후 근대 학문의 수용과 더불어 단군과 그 신화에 대한 일제 관학자들의 부정론을<sup>2)</sup> 극복하려는 노력과<sup>3)</sup> 단군이 우리 역사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넘어

- 1) 고조선과 단군 연구의 방향과 내용들은 1993년 북한의 소위 단군릉 발굴과 2000년 대 초반 중국의 동북공정을 전후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면서 급변했다. 단군 연구는 신화 자체에 대한 접근, 신화와 역사의 관계, 전승 내용과 인식론 등의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연구사를 정리한 최근의 논저들은 다음과 같다. 윤이흠 외, 1994, 『檀君; 그 理解와 資料』, 서울대학교출판부(1997, 증보); 이필영, 1996, 「檀君神話認識의 諸問題-學史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 한국고대사학회; 이형구, 1999, 「檀君과 古朝鮮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조법중, 1999, 「古朝鮮關聯研究의 現況과 課題-단군인식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조법중, 2012, 「단군 연구사 검토 및 역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이은봉, 1999, 「단군신화 연구의 경향과 과제-종교적 측면에서」,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이기동, 2000, 「북한에서의 단군연구와 그 송양운동」,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김두진, 2000, 「단군에 대한 연구의 역사」,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김성환, 2008, 「단군 연구사의 정리와 방향: 단군릉 발굴 이후 역사학 분야 성과를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8, 단군학회 등 참조.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동북공정을 진행하면서 고조선도 중국 동북지방사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고조선 건국신화에 대한 그들의 관점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연구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군은 실존 인물이 아니며, 단군신화는 중국신화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중심 논점이다. 여기에서도 고조선을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비판은 서영대, 2012, 「중국학계의 단군 연구와 그 비판」, 『고조선단군학』 27, 고조선단군학회 참조. 한편 단군릉 발굴 이후 그 능과 그곳에서 출토된 인골을 단군의 실체로 파악한 북한학계의 결과는 전대준·최인철의 『조선단대사(고조선사)』(20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로 집약되었다.
- 2)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5-4, 東京大史學會;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學會雜誌』 28(1970, 『白鳥庫吉全集』 3 재수록); 白鳥庫吉, 1894, 「朝鮮의 古傳說考」, 『史學雜誌』 5-12, 東京大史學會; 今西龍, 1910, 「檀君의 傳說につきて」, 『歴史地理』(朝鮮號), 日本歴史地理學會; 今西龍, 1929, 「檀君考」, 『靑丘學叢』 1(1937, 『朝鮮古史의 研究』 재수록); 신종원 엮음, 2005,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참조.
- 3) 신채호, 최남선 등의 선형적 연구가 대표적이다. 申采浩, 1948,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崔南善, 1927, 「檀君及其研究」, 『朝鮮及朝鮮民族』 1(李基白 編, 1990, 『檀君神話論集』, 새문사 재수록); 崔南善, 1941, 「三國遺事解題」, 『新訂三國遺事』; 崔南善, 1954, 「檀君古記箋釋」, 『思想界』 1954년 2월호, 사상계사 등 참조.

민족의 시조로 확장·강화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sup>4)</sup> 그런데 고조선의 역사계승인식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는 단군이 고조선보다 강조됨으로써 그 역사성이 일부 희석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단군신화, 단군인식의 측면에서 검토되어 온 시대별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고조선 건국신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 멸망 이후 역사성을 상실하고 전해졌던 건국신화가 고려 전중기 이후 어떻게 역사성을 회복했는지, 그 내용은 어떠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고구려에서 고조선 건국신화에 대한 전승의 측면을 살피고자 한다.<sup>5)</sup> 이에 고구려고분벽화 중에서 이미 그 가능성이 검토되어 온 각처총·장천1호분의 고평과 호랑이, 수목송배 등의 장면을 고조선 건국신화의 모티브와 관련하여 수용하고, 특히 장천1호분의 聚戲 장면을 고구려의 제천의례인 동맹과 관련짓고자 한다. 즉 동맹에서 설행되었을 고구려의 고유신앙 체계에 용해된 고조선 건국신화의 단편을 확인하여 고려 전중기 이후 비로소 보이는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계승인식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둘째, 고려 전중기 도참사상에 착종되어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전해지던 고조선 건국신화의 모습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그 내용이 역사성과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 水母木幹이라는 고려 초 地脈에 대한 인식이 水德에서 木德으로의 지향이라는 운수론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조선 건국신화의 잔상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고조선 건국신화를 읽는 방식과 체계가 확연하게 다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중심으로 고려 후기에 고조선 인식이 재정립

4) 특히 일제강점기의 이 같은 경향을 ‘단군민족주의(Dangun Nationalism)’로 규정한다. 신용하, 1980, 「신채호의 애국계몽사상」, 『한국학보』 20, 일지사; 한영우, 1980, 「1910년대의 역사서술」, 『한국문화』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참조. 한편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단군민족주의의 출현을 조선시대까지 소급하기도 한다. 정영훈, 1995, 「한국사 속에서의 ‘檀君民族主義’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2, 한국정치학회, 33~55쪽; 정영훈, 2013, 「한민족의 정체성과 단군민족주의」, 『민족문화논총』 5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93~137쪽.

5) 논의 과정에서 부여, 또는 범부여계의 건국신화와 고조선 건국신화의 관계를 먼저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향후를 기약한다.

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 이후 성리학 수용의 주체인 신진사대부들이 설정했던 개혁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된 고조선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조선에서 출발하는 역사계승인식은 당시 대내외적 시대인식의 결과였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 가운데 아사달산신이라는 고조선 시조의 사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역사적 실존인물로서의 인식방법인 檀君墓와<sup>6)</sup> 후계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점에도 유의하고자 한다. 덧붙여, 요동이라는 고조선의 영토와 관련하여 고조선 인식이 고려 말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중국과 요·금, 특히 원과의 관계에서 축소되었던 영토인식에서 벗어나 공민왕 때 파사부를 둘러싼 다툼과 요동정벌 등이 고조선의 고토 수복이라는 관점에 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

## II. 고구려에서 고조선 건국신화의 전승

중국 先秦 시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단편적인 고조선 관련 기록,<sup>7)</sup> 《사기》·《한서》 등에서 중국 입장으로 정리된 한·조선의 전쟁 기록<sup>8)</sup> 등은 고조선의 역사적 위치를 드러내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고조선의 특산물, 교역과 이로 인한 마찰, 전쟁 등은 고조선이 중국의 외교 대상 중에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6)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단군묘·단군릉 전승에 대해서는 김성환, 2009,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김성환, 2009, 『日帝強占期 檀君陵修築運動』, 경인문화사 참조.

7) 송호정, 2012, 「先秦文獻에 기록된 古朝鮮 사회와 주민집단」, 『역사와 담론』 61, 호서사학회, 223~250쪽.

8) 김병준, 2008,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50, 한국고대사학회, 5~50쪽.

《시경》 韓奕<sup>9)</sup>편의 韓이 위만에게 멸망한 조선으로 파악됨으로써<sup>9)</sup> 고조선에 대한 이해의 단면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자료들만으로 고조선사를 구성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고조선 건국신화에 대해서는 이후 13세기 후반 《삼국유사》·《제왕운기》의 출현 이전까지 그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신화의 특성상 그 내용과 의례는 당시부터 반복되고 변화하며 고조선의 고토에서 그 유민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다.<sup>10)</sup>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의 건국사실은 《魏書》라는 자료를 근거로 천명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이루어진 분주를 걷어내면 보다 분명하다. “이천 년 전에 壇君王儉이 阿斯達에 도움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했는데 요임금과 같은 때”<sup>11)</sup>라는 기록이다. 《위서》의 성격에 대한 제반 견해 중에서<sup>12)</sup> 그 소재가 《삼국유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찬 주체는 魏滿朝鮮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다.<sup>13)</sup> 최소한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건국사실은 완결성을 갖추어 자료에 서술되고 있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자료에서는 건국신화의 단편 조각 전혀 찾을 수 없다.

- 
- 9) 후한 때인 2세기에 王符는 《潛夫論》에서 《詩經》 韓奕편의 韓侯·韓城을 위만에게 침공을 당한 조선으로 파악했다. 《潛夫論》 권9, 〈志氏姓〉 “昔周宣王時 亦有韓侯 其國地近燕 故詩云 普披韓城 燕師所完 其後韓西亦姓韓 爲衛滿所伐 遷居海中”. 한편 선진 시대의 조선 관련 기록을 민족주의 시각으로 읽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성규, 2003,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시민강좌』 32, 일조각, 105~160쪽; 심재훈, 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 『詩經』 韓奕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51~300쪽.
- 10) 서영대, 2009, 「한국 고대의 제천의례」, 『한국사시민강좌』 45, 일조각, 1~24쪽; 서영대, 2010, 「고대사회의 종교와 습속」, 『한국사』, 한길사 참조.
- 11)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왕검조선].
- 12) 《삼국유사》 고조선조 소재 《魏書》의 성격에 대해서는 僞書論, 중국의 《魏書》와 관련한 견해, 위만조선의 사서와 관련한 견해 등이 제출되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하고 있는데, 특히 박대재는 魏收의 古本 《魏書》로 추정했다. 박대재, 2001, 「《三國遺事》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한국사연구회, 1~31쪽.
- 13) 위만조선의 사서와 관련한 견해는 丁仲煥, 1977,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對하여」, 『大邱史學』 12·13, 대구사학회;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 - 史料批判の再檢討」, 『韓國文化』 4-6 참조.

이후 고조선은 고구려 동명왕이 壇君의 아들임을 단언하고 있는 《삼국유사》〈왕력〉의 기록에서<sup>14)</sup> 역사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확인된다. 이것은 건국신화의 측면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 북·동부여의 건국신화를 빼놓을 수 없다. 고조선과 북·동부여 건국신화는<sup>15)</sup> 帝釋·上帝·天帝라는 하늘과 직접 연결된 구조를 가진다. 북·동부여가 고조선의 故地에서 토대하였듯이 해모수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환웅을 연상할 수 있다. 또 해모수가 하백녀를 얻은 곳이 태백산이었고, 고구려의 주몽을 잉태한 곳과 관련된 장소는 熊神山(熊心山)·熊心淵이었다. 두 신화가 장소를 공유하고 있다. 북부여 건국신화가 고조선 건국신화의 일정한 영향 아래에 있었고, 이들은 후대에 교섭하면서 전해졌다. 《삼국유사》에서 하백의 딸을 매개로 단군과 부루·주몽이 각기 부자와 형제 관계로 맺어져 있음도<sup>16)</sup>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왕운기》에서는 《동명본기》를 인용하여 졸본을 중심으로 주몽과 영역 다툼을 벌였던 비류국왕 송양이 仙人의 후손임을 밝힌 사실에 근거하여 비류국 또한 단군의 후손으로 추측하고 있다.<sup>17)</sup> 또 이에 근거하여 송양 세력을 고구려의 소노부와 관련시켜 그 지역에 선주했던 비류국을 단군의 후예로 적극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sup>18)</sup>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계승 문제에서 고구려의 주몽 집단을 배제하는 이해다. 그런데 《제왕운기》의 이 기록에서 “이 또한 단군의 후예로 의심된다[此亦疑檀君之後也]”의 ‘亦’은 부가적인 의미로, ‘疑’는 “확신

14) 《삼국유사》 권1, 왕력, 고구려 “第一 東明王 甲申立 理十一八 姓高 名朱蒙 一作 鄒蒙 壇君之子”.

15) 《동국이상국전집》 권3, 고을서, 〈동명왕편〉; 《삼국유사》 권1, 기이2, 〈북부여〉·〈동부여〉·〈고구려〉 참조.

16)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구려 참조.

17)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漢四郡及列國紀〉 참조.

18) 조법중, 2005,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단군 인식 검토-한국 고대 동물숭배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2, 단군학회, 365~386쪽; 조법중, 2005,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 연구-고조선·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3, 한국고대학회, 147~172쪽; 최일레, 2010, 「고구려인의 관념에 보이는 단군신화의 투영 맥락」, 『韓國思想과 文化』, 한국사상문화학회 참조. 이 같은 논의의 단편은 김기흥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김기흥, 2001,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한국사연구』 113, 한국사연구회, 24쪽.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여러 단군의 후예 이외에 송양 세력도 단군의 후예일 것이다”라는 정도로 해석된다.<sup>19)</sup> 따라서 단군의 후예를 송양으로만 국한하는 견해는 제한적이다. 범부여계의 건국신화에서 고조선 건국신화의 요소들이 교섭하고 있는 결과와도 배치된다. 고구려 동명왕이 壇君의 아들임을 단언하고 있는 《삼국유사》〈왕력〉의 기록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분명한 것은 하늘과 직접 연결된 고구려 왕실의 신성관념에는 天神의 후손인 단군전승이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단군전승을 ‘仙人’에 주목하여 송양 세력에만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제석·상제로 대표되는 하늘과 연결된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고조선 왕실의 신성관념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이후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 왕실의 그것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계승문제에 대한 논의는 범부여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해모수·해부루의 북부여·동부여 신화는 이런 점에서 유의해야 하며, 그 결과로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보다 합리적인 인식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5세기 전·중반에 조영된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각저총과 장천1호분 벽

- 
- 19) 송양 세력이 계루부 왕실의 승인 아래 별도의 종묘와 사직을 운영했던 고구려의 전 왕족인 연노부[소노부]와 관련된다면, 그들과 왕실의 관계를 봉건제와 유사한 이중 구조로 관련지을 수 있으나 단언하기 어렵다. 최근에 宗國(?) 계루부를 중심으로 그 아래의 那部制 운영을 염두에 둔 견해가 제출되기도 했다. 윤상렬, 2014, 「고구려 前期 신성관념의 성립과 정착과정」, 『高句麗渤海研究』 48, 고구려발해학회, 53~56쪽.
- 20) 고구려 대무신왕의 모계가 多勿國王 松讓의 딸인 松氏(《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참조)임을 근거로 고구려가 혈연적으로도 고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했음을 추측한 견해가 있다. 윤상렬, 2014, 위의 글, 64~66쪽 참조. 《삼국유사》 왕력편에 고구려 동명왕을 가리켜 ‘壇君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대무신왕이 자신의 위상을 소급한 소산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 대무신왕이 왕자 시절에 부여왕 대소가 보낸 사신에게 고구려 왕실의 先祖가 神靈之孫임을 밝히고 있는 사실(《삼국유사》 권13, 고구려본기1, 유리왕 28년 8월 참조)에 대해서도 그 선조의 성격을 天神의 神性和 관련하여 이해하고, 범위를 遠祖라 부를 수 있는 고조선과 부여의 왕실까지 넣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윤상렬, 2014, 앞의 글 참조). 그렇지만 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설정한 것 자체가 지니는 신성성은 송양 또는 다른 세력의 신성성을 차용하는 것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함이 자명하다.

화의 일부 모티브는 고조선 건국신화와 관련하여 주목된다.<sup>21)</sup> 각저총에서 자색나무를 등대고 있는 곰과 호랑이의 모습은 《삼국유사》의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神壇樹에서 환웅에게 사람이 되고자 비는 곰과 호랑이를 닮아 있다. 장천1호분에서 자색나무 뿌리 아래 굴을 파고 무언가를 쥐고 있는 곰의 모습 또한 동굴에서 금기하고 있는 곰[웅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전체 벽화의 구성에서 이들을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할지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삼국유사》에 서술되어 있는 고조선 건국신화의 모티브를 반영하고 있다. 또 장천1호분의 수목송배의 모습은 《제왕운기》에서의 고조선 건국신화와 관련하여 접근할 수 있다. 단군이 檀雄의 손녀와 檀樹神의 아들이라는 신화의 내용에서 그러하다. 특히 화면 중앙에서 수목송배를 중심으로 의례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큰 백마가 고구려의 제천의례인 동맹을 주관하는 국왕을 상징하는 것이라면,<sup>22)</sup> 고조선 건국신화는 이후 어떤 형태로든지 의례를 통해 구현되어 고구려 사회에서 동맹제의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고구려에서는 5세기 전·중반까지 고조선 건국신화가 일정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 21) 齊藤忠, 1987, 「集安角抵塚壁畫の熊と虎の畫」, 『東アジア葬制の研究』 第一書房 (김진광 역, 2009, 「집안시 씨름무덤 벽화의 곰과 범 그림」,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1989, 「角抵塚の角抵(相撲)・木・熊・虎とある畫面について」, 『壁畫古墳の系譜』 第三章(『日本考古學研究』 2), 學生社; 강릉남, 1996, 「단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이해와 송배」, 『력사과학』 1996-2 참조. 또 고구려 건국신화로서 주몽신화가 4~6세기 고구려고분벽화의 주요 소재였음은 김기흥, 앞의 글, 25쪽 참조.
- 22) 김성환, 2013,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59~97쪽. 고구려 동맹에서의 의례는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그 성격은 ‘엄숙형’과 ‘축제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영대, 2003, 「高句麗의 國家祭祀 - 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0, 한국사연구회, 1~32쪽; 조우연, 2011, 「고구려 祭天儀禮의 전개」, 『高句麗渤海研究』 41, 고구려발해학회, 37~71쪽; 이준성, 2013, 「고구려 國中大會 東盟의 구성과 축제성」, 『역사와 현실』 87, 한국역사연구회, 305~332쪽 등 참조. 특히 장천1호분의 벽화는 왕실의 신성성을 위한 엄숙형과 어우러짐을 위한 난장적 행사들을 함께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장천1호분의 여러 놀이 장면들을 『隋書』에서 확인되는 聚戲(『隋書』 권81, 東夷傳, 高麗 참조)와 관련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이준성, 위의 글, 326~327쪽.

고구려 국왕은 동맹제의에서 천신과 함께 國城의 동쪽에 있던 大穴에 모시던 隧神은 물론, 靈星神·日神·可汗神·箕子神 등의 제의를 주관했다.<sup>23)</sup> 제천 의례를 통해 하늘에서 출발하는 건국신화의 신성성을 확인하고 고구려의 신앙 체계에서 기능했던 일신·가한신<sup>24)</sup>·기자신 등을 아울렀다.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고조선에서 고구려로의 역사계승인식이 은연중에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역측은 고구려 시조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기록을 정점으로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적인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고조선의 고토에서 그 유민들에게 전해졌던 건국신화는 첫 단계에서 부여 건국신화와 교섭했을 것이고, 이후 부여 건국신화는 고구려 건국신화와 교섭하며 착종된 형태로 고구려에 전승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 건국신화에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변전된 형태로나마 차용되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고조선 건국신화는 부여와 고구려 건국신화에 용해되면서 고조선에 대한 역사성과 의미를 점차 상실해 갔다.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상징 요소 등을 중심으로 막연하게 고조선의 역사계승성이 존재했지만, 건국신화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에 침식되어 후대로 내려올수록 변개와 탈락·보입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삼국사기》에서 고구려의 평양에 대한 선인왕검의 기억은<sup>25)</sup> 그것이 고구려 당대의 기록이든, 고려 중기의 것이든 관계없이 그간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고조선 건국신화를 전하는 자료의 출처는 《고기》와 《본기》로 특정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서 그 내용은 건국시조의 출생담과 영웅담을 근간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건국신화와 달리 단군의 先系에 맞추어져 있다. 삼국의 건국신화들과 비교할 때, 그 선계가 하늘과 직접 연결된

23) 《구당서》 권199, 열전 제149, 상,동이, 고려 “其俗多淫祀 事靈星神·日神·可汗神·箕子神 國城東有大穴 名神隧 皆以十月 王自祭之”.

24) 고구려의 동맹에서 제사를 지냈던 可汗神과 단군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영우, 1983, 「高麗와 朝鮮前期의 箕子認識」, 『朝鮮前期社會思想研究』, 지식산업사 참조.

25)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1년 참조.

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조의 역할에서 고조선의 단군은 삼국의 시조들보다 지극히 간략하다. 고조선 멸망 이후 건국시조를 중심으로 하던 고조선 건국신화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것은 고조선 건국신화가 고구려 건국신화에 용해되어 가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풍부했던 건국의 신성담은 주몽과 비교되면서 삭제 또는 변개되었을 것이고, 일부는 주몽에게 덧씌워졌을 것이다.

《고기》의 고조선 건국신화는 단군의 출생, 건국과 천도, 어국, 최후, 수명을 포함함으로써 내용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기》 역시 마찬가지다.<sup>2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시조의 출생부터 고조선 멸망까지의 내용은 다른 건국시조의 출생배경과 비교하여 소략하다. 전승 과정에서 전자의 내용이 많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완결된 사서 형태로 고조선 역사를 전하는 자료가 이들 자료의 저술 당시에는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이미 고구려 당시에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되는 고조선 건국신화의 모티브들과 이후 고구려 건국신화 등을 비롯하여 고구려 관련 전승에 용해되어 나타나는 단편적인 기록들은 이런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희미해졌지만, 건국신화의 단편이 여러 곳에 산견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26) 《고기》와 《본기》의 저술 시기 및 성격 등에 대해서는 여러 성과가 제출되었지만, 그 시기의 상한은 고려 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참조.

### Ⅲ. 도참을 통해 전해진 고조선 건국신화

고려시대에 고구려의 문화전통이 그 고토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었음<sup>27)</sup>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동명왕은 삼국의 시조 중에서 초기부터 유일하게 고려의 국가제사에 포함되어 있었다.<sup>28)</sup> 고려의 고구려 역사계승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구려 문화는 고조선·부여의 그것과 교섭과 착종을 거듭하며 형성되었다. 그런 가운데 고조선 문화는 고구려 문화에 용해되어 역사성을 상실하면서도 그 잔상을 이어갔다.

고조선은 고려 전중기까지 고려에 앞선 역사체계에서 분명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삼국시대에 각국의 역사편찬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고조선이 삼국의 역사계승인식과 적극 연결되지 못했음도 물론이다. 단지 고구려를 중심으로 그 단편의 내용과 장소들이 기억되었다. 그리고 도참과 관련하여 그 전승 양상들이 확인될 뿐이다.<sup>29)</sup> 고려 태조는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평양(서경)을

27) 노명호, 2012, 『고려태조 왕건의 동상-황제제도·고구려 문화 전통의 형상화』, 지식산업사 참조.

28) 김창현, 2005, 「고려시대 평양의 동명승배와 민간신앙」, 『역사학보』 188, 역사학보, 103~135쪽; 채미하, 2009,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4, 동북아역사재단, 143~176쪽. 후삼국 통일로 초기부터 표방되었던 一統三韓 의식과 달리 삼국의 왕릉과 사당에 대한 관심은 현종 8년(1017)에 비로소 나타난다. 《고려사》 권4, 현종 8년 12월 참조.

29) 9세기 후반 일본에 수입되어 있던 제반 서적의 상황을 알려주는 《日本國見在書目録》(《本朝現在書目録》)라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일본 平安 중기의 학자인 藤原佐世(828~898)가 奉勅하여 편찬한 것으로, 여기에서 《高麗國記》(4권)라는 서명이 확인된다(《續群書類從》 권884, 《本朝現在書目録》, 土地家 참조). 그런데 《고려국기》는 《산해경》, 《括地志》, 《西域記》 등과 함께 土地家로 분류되어 있다. 자세한 추론이 어렵지만, 고구려 말에 유통되었던 《고구려비기》의 존재를 염두에 둘 때, 이 자료는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의 인문과 지리, 도참적인 내용 등을 중심으로 唐에서 저술되어 9세기 중후반에 일본에 수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日本國見在書目録》의 소개에 대해서는 孫猛, 2006, 「淺談《日本國見在書目録》」 (tangsong.blog.hexun.com.tw/1993873\_d.html) 참조. 이 자료는 기호철 선생님이 제공해 주셨다. 감사드린다.

“水德이 調順하여 고려 지맥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라고 인식하여 천도를 추진했다.<sup>30)</sup> 定宗도 태조를 계승하여 도참에 따라 서경으로 천도하려 했다.<sup>31)</sup> 태조와 정종의 서경에 대한 관심의 배경 중에 하나가 도참에 있었다는 사실은 고구려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오던 고조선과 단군에 대한 전승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특히 고려 전기에 단군전승이 도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고종 21년(1234)에 남경이 고조선의 도읍 명칭으로 짐작되는 阿思達에 비정되고 있는 것<sup>32)</sup>과 달리, 숙종 1년(1096)에 《道說記》와 《神誌秘詞》를 근거로 三京制의 운용과 남경 창설을 건의했던 金謂磾의 언설과 예종 때 道說說로 같은 건의를 했던 殷元中에게서는<sup>33)</sup> 이 같은 이해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평양에서 평양신<sup>34)</sup>으로의 숭배, 묘청 팔성당에서 호국백두악태백선인·구려평양선인<sup>35)</sup> 등 옛 고조선과 고구려 영역에서의 지역 신격으로,<sup>36)</sup> 더 나아가 도참과 연계되어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통해 전하는 《고기》·《본기》·《단군기》·《단군본기》 등의

30) 《고려사》 권2, 태조 15년 5월 갑신 및 26년 4월 혼요 참조.

31) 《고려사》 권2, 정종 4년 3월 병진 참조.

32) 《고려사》 권23, 고종 21년 7월 갑자 참조.

33) 《고려사》 권122, 열전35, 方技, 〈金謂磾〉 참조.

34) 平壤神은 西京神·平壤君으로도 불렸다. 西京神의 사례는 《고려사》 권4, 현종 원년 11월 신묘, 平壤神은 《고려사》 권53, 지7, 오행1, 명종 17년 11월 경신, 平壤君은 《고려사》 권30, 충렬왕 19년 10월 무신 참조.

35)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1, 묘청 참조.

36) 구려평양선인을 비롯하여 평양신의 신격을 단군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필자의 견해(김성환, 1999, 「高麗時代 平壤의 檀君傳承」,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123~142쪽)와 달리 구려평양선인은 동명왕으로, 평양신은 군사적으로 서경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성황신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으로는 태조 때의 공신인 김락으로 이해하는 견해(김창현, 위의 글, 129~131쪽)도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고려 왕실의 운수관과 관련한 문제로 종합적인 검토는 후고를 기약한다. 다만 고려의 지맥이 水母木幹이라는 도선의 선언은(《고려사》, 서문, 〈고려세계〉 참조) 이후 고려사회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의 하나로 작용했고,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고려의 도참적인 운수관이 水德에서 木德으로의 지향을 시도하는 가운데 고려를 부정하는 역모와 연결되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고려는 말기까지 水德을 표방한 한 왕조였고, 木德으로의 지향은 역성혁명의 논리였다.

자료 역시 그 같은 자료 중에 일부였거나, 그 영향을 받은 자료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기》·《본기》의 저술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어렵지만, 그 시기를 고려 전기 이전으로 소급하기 어렵다. 특히 《삼국유사》의 〈고조선〉과 〈북부여〉에 인용되고 있는 《고기》가 같은 성격의 자료라고 할 때, 〈북부여〉에서 천제인 해모수가 내려온 곳인 흘승골성의 위치를 요나라 醫州로 비정하고 있음을<sup>37)</sup>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고기》의 성립연대가 최소한 12세기 초반 이전이었음을 뜻하며, 아울러 또 다른 단군 관련 자료인 《단군기》<sup>38)</sup>의 성립이 《고기》 이전 또는 같은 시기라는 사실을 동반한다.

문제는 《고기》와 《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조선 건국신화에 있다. 이들은 고조선의 고토에서 고구려를 거쳐 고려까지 전해지며 각각의 왕조와 지역에서 제반 요소와 연동하며 변화했겠지만, 두 자료의 신화는 내용과 구조부터 완전히 다르다. 물론 《고기》도 神壇樹가 중요한 제재이지만, 내용에서 《고기》가 수조신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면 《본기》는 수몽승배가 중심이다. 구조에서 《고기》가 부계 중심의 3대 구조인 반면, 《본기》는 비부계의 5대 구조다. 그런데 《본기》는 고려시대의 양측적 친속 관념<sup>39)</sup>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왕실의 〈고려세계〉와 다르지 않다.<sup>40)</sup> 이것은 희미해진 고조선의 역사성 속에서도 신화의 내용은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버전과 달리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전승이 지속되면서도 다른 요소들과 교섭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섭은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었다.

37) 《삼국유사》 권1, 기이1, 〈북부여〉 참조.

38)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魏書》에 의지하여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확인되는 《단군기》·《단군본기》의 출현을 고려 이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광수, 1988,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역사교육』 43, 역사교육연구회, 99~100쪽.

39) 노명호, 1987, 「高麗社會의 兩側의 親屬組織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40) 《고려사》 권1, 고려세계; 김성환, 2006, 「고려시대 단군관의 역사적 정립」, 『백산학보』 75, 백산학회 참조.

《본기》의 건국신화는 정치적인 목적과 명분에 몇 차례 이용되었다. 12세기에 들어와 인종 때 이자겸의 난과 명종 때 이의민의 난은 ‘十八子之讖’에 기대어 자신들이 왕이 될 것이란 참설에 근거하고 있었다.<sup>41)</sup> 이 난에는 다른 참설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sup>42)</sup> 그 핵심은 ‘十八子’, 즉 ‘木子’→‘李’씨가 왕이 된다는 것에 있었다. 고려의 운수관을 水德에서 木德으로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 《본기》에서 檀樹神의 아들로 설정되고 있는 단군[木子]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신화가 도참과 착종하면서 반역의 명분으로 이용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sup>43)</sup> 고려 전중기에 《본기》의 신화가 반역의 명분으로 등장하다 보니 이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고려 조정의 입장에서 《본기》의 신화는 자연 금기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다른 한쪽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언 또는 도참의 기능을 강화해 갔을 것이다. ‘십팔자지참’이 고려 말에 ‘木子得國讖’으로 변형되어<sup>44)</sup> 신왕조의 건국에 이용되고 있음은 그 사례다.

《고기》의 건국신화는 그 전승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뚜렷하지 않다. 도참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렇다고 《고기》가 도참과 무관한 자료라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지만, 《본기》를 대체하며 《고기》의 고조선 건국신화가 전면 등장한 배경에는 강화로 천도한 이후 몽고와의 관계에서 국왕 친행을 요구하는 유례가 없던 강압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

41)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1, 이자겸; 《고려사》 권128, 열전41, 반역2, 이의민 참조.

42) 대표적인 것이 고려 왕실의 신성관념인 용손은 12대가 지나면 기운을 다한다는 ‘龍孫十二盡說’, 고려의 도읍인 개경의 지기가 다해 이를 다지기 위한 연기비보의 ‘開京地氣衰旺說’ 등이다.

43) 필자는 앞서 고조선의 도읍이었던 아사달이 고종 21년(1231)에 ‘개경지기쇠왕설’과 연계되면서 남경으로 비정되어 도참에서 변혁의 길지로 주목되고 있는 사실을(《고려사》 권23, 고종 21년 7월 갑자 참조) 고려의 운수관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다(김성환, 2000, 「高麗 前·中期의 檀君認識」, 『백산학보』 57, 백산학회).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도참에 근거한 운수관뿐만 아니라 고려 왕실의 삼경제 운용에 대한 제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44) 《고려사》 권137, 열전50, 우왕 14년; 《고려사》 권54, 지8, 오행2, 금, 우왕 14년 참조.

로 보인다. 원종 5년(1264) 마리산 참성에서의 국왕 親醮가 그것인데, 도참에 능했던 白勝賢의 참설에 기대어 설행되었다.<sup>45)</sup> 이때 제사장으로서 국왕의 모습은 강조되었고, 이것은 《고기》의 ‘壇君’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고기》의 건국신화를 《삼국유사》에 서술하여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천명한 一然 또한 이때 江都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건문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sup>46)</sup>

고려 전중기에는 현재보다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고조선 관련 전승이 있었다. 고려시대에 고조선 건국신화의 내용을 전하는 자료로 현재 확인이 가능한 것은 대략 3종이다. 앞서 살펴본 《고기》와 《본기》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승휴가 《제왕운기》의 원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석계 환인→□→壇君으로 이어지는 부계 중심의 3대 구조다.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어 조심스럽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고기》와 같고, 내용은 《본기》에 닿아 있다고 보인다.<sup>47)</sup> 그렇지만 그 자료들의 대부분은 고조선의 역사성을 상실하고 대체로 평양·구월산 등에서 신격으로 기능했고, 도참과 결탁하여 급격한 사회적 변혁을 요구하는 기제로 이용되었다. 이것이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전승될 수 있는 하나의

45) 《고려사》 권26, 원종 5년 6월 경술; 《고려사》 권126, 열전36, 백승현 참조. 마리산 참성 초례는 이후 매년 봄가을로 국왕을 대신하는 향사의 섭사로 진행되었다. 김철웅, 2008, 「조선전기의 塹城醮禮」, 『도교문화연구』 28, 한국도교문화학회, 267~294쪽; 김철웅, 2012, 「강화도 참성(塹城) 초례문(醮禮文)의 분석」, 『동아시아 古代學』 28, 동아시아고대학회; 김성환, 2012, 「강화도 단군전승의 성격」,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7~40쪽; 김성환, 2013, 「1358년(공민왕 7) 李穡의 摩尼山 紀行과 塹城壇 醮禮」, 『역사민속학』 42, 한국역사민속학회, 7~35쪽 참조.

46) 이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 원종의 塹城壇 親醮와 壇君」에서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47) 이승휴가 《제왕운기》의 본문에서 신고 있는 부계 중심 3대 구조의 신화는 단군 출생을 모티브로 하는 건국신화의 분류에서 《본기》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구월산 三聖祠를 중심으로 전해지던 전승내용이 檀因(桓因)天王→檀雄(桓雄)天王→檀君天王的 계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6월 14일(을미);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28일(기축);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6일(계유) 참조. 그 내용은 《고기》나 《본기》와 차이가 있었을 것이지만, 알 수 없다.

요건이었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sup>48)</sup> 고려 전중기는 고조선 건국신화의 원형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 전승의 주류는 《고기》보다 오히려 《본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IV. 고조선 건국신화의 재발견과 인식의 재정립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지니는 의의는 고려 역사가 고조선에서 출발한다는 역사인식을 토대로 고조선 이후 고려까지의 역대 왕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두 자료의 고조선 인식론은 출발부터 차이가 있었다. 《삼국유사》는 고조선과 魏滿朝鮮의 2조선 체계의 인식론에서, 《제왕운기》는 전조선과 후조선, 위만조선의 3조선 체계의 인식론에서 출발한다.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의 개국과 기자의 동래가 고조선이란 하나의 틀에서 이해되었던 반면에, 《제왕운기》에서는 분리되어 이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은 그 시조였던 왕검을 관칭하여 왕검조선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단편이나마 고조선[古朝鮮, 故朝鮮]의 용례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먼저 《사기》와 《한서》에서 고조선을 ‘조선’으로 기록하였고, 이는 구체적으로 위만조선을 의미했다.<sup>49)</sup> 그런 고조선은 한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故地에 설치했던 군현 중에 하나인 낙랑군과 관련하여 《후한서》에서 비로소 故朝鮮國으로

48) 조선 건국 이후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인 세조 이후 《고조선비사》 등 고조선 관련 자료가 금서로 지목되어 회수의 명이 내려진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세조실록》 권7, 세조 3년 5월 26일(무자); 《예종실록》 권7, 예종 1년 9월 18일(무술); 《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 12월 9일(무오) 참조.

49) 《사기》 권115, 〈조선열전〉 및 《한서》 권95, 西南夷兩粵朝鮮傳 제65, 〈朝鮮〉 참조.

기록된다.<sup>50)</sup> 이것은 앞선 두 자료의 조선에 대한 서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6세기 말 이후 자료에서 그 도음이었던 평양성이 王險城과 관련되어 이해되었다.<sup>51)</sup> 이 시기 고조선은 古朝鮮으로도 기록되었다.<sup>52)</sup> 그런데 이들 자료에서의 고조선 역시 《사기》·《한서》에서 기록되었던 조선, 즉 위만조선을 가리킨다. 고조선 멸망과 관련한 당대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사기》·《한서》에서의 조선이 이후 자료들에서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故’ 또는 ‘古’를 반영하여 고조선으로 인식되었음을 뜻한다. 이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고조선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sup>53)</sup> 다른 자료에서 조선은 기자의 동래와 관련하여 서술되었다. 523년에 제작된 魏의 〈王基墓誌銘〉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 그의 출자는 주 무왕으로부터 조선에 봉해진 기자에게서 비롯되었다고<sup>54)</sup> 서술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대내외에서 이미 조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 개념은 지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역사문화적인 측면 또한 내포되어 있었다. 당은 고구려 멸망 후 보장왕과 그 손자 寶元을 朝鮮王·朝鮮郡王으로 봉했고,<sup>55)</sup> 8세기 초 高慈와 泉男山の 묘지명에서 동명이나 주몽의 후손인 그

50) 《후한서》 권1하, 光武帝紀 제1하, “建武六年(30)初 樂浪人王調據郡不服 樂浪郡故朝鮮國也 在遼東”; 《한서》 권28하, 지리지 제8하,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應劭曰 故朝鮮國也 師古曰 樂音洛 浪音狼”.

51) 《자치통감》 권178, 隋紀2, 高祖文皇帝, 開皇18년(598) 6월 병인 및 《통전》 권185, 변방1, 동이 상 참조.

52) 《사기》 권6, 진시황본기 제6, 26년 “…… 地東至海暨朝鮮【正義】暨 其記反 朝音潮 鮮音仙 海謂渤海南至揚·蘇·台等州之東海也 暨及也 東北朝鮮國 括地志云 高驪治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卽古朝鮮也”; 《사기》 권25, 律書 제3, “…… 歷至孝文卽位 將軍陳武等議曰 南越·朝鮮【正義】潮仙二音 高驪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卽古朝鮮地 時朝鮮王滿據之也”.

53)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신라 “按兩漢志 樂浪郡距洛陽東北五千里 注曰屬幽州 故朝鮮國也”; 《삼국유사》 권 제1, 기이 제1, 〈樂浪國〉 “前漢時 始置樂浪郡 應邵曰 故朝鮮國也”.

54) 〈魏故處士王君墓誌銘〉 “君諱基 字洪業 樂浪遼城人也 …… 其先出自有殷 周武王剋商 封箕子於朝鮮 子孫因而氏焉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北朝—』, 北京圖書館金石組編, 法仁文化社, 誌 147).

55) 《구당서》 권199, 동이열전 제149, 고구려;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들의 출신지는 ‘조선’ 또는 ‘요동의 조선’으로 기록되었다.<sup>56)</sup> 반면에 우리 자료에서 조선은 9세기 말부터 ‘我邦’을 지칭하는 용례로 확인된다. 신라 진성여왕 4년(890)에 건립된 충주의 <月光寺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에서 사용된 조선의 용례,<sup>57)</sup> 896년 왕건의 아버지인 세조가 궁예에게 신왕조의 지향이 “조선·속신·변한의 영역을 아우르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음은<sup>58)</sup> 이를 의미한다.<sup>59)</sup> 조선은 삼한과 비교하여 폭넓은 범위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我邦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계승성이 희미하게 작용하고 있었다.<sup>60)</sup>

고려 이전 중국과 삼국은 그 관계에서 기자와 위만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대외정책의 큰 틀을 운영하였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대와 정벌이라는 조선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기자와 위만에 대비시켰다.<sup>61)</sup> 그런 가운데

참조.

- 56) <大周故□□將軍行左豹韜衛郎將贈左玉鈐衛將軍高公墓誌銘并序>(『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唐—』, 北京圖書館金石組編, 法仁文化社, 誌 6154) 및 <泉男產墓誌銘>(국사편찬위원회, 1995,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I)』—高句麗·百濟·新羅—, 428~436쪽).
- 57) <月光寺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 “…… 其詞曰 □□□□□□沙 達摩兮傳心中華 散滿兮山盈谷溢 周流兮地角天涯 圓通兮無形無相 任用兮非實非花 強字兮玄珠法印 強名兮迦葉盧遮 朝鮮兮東接扶桑 昔賢兮稱茲福□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83~493쪽).
- 58) 《고려사》 권1, 태조 총서 참조.
- 59) 비록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세조[龍建]의 이런 언급에 대해 조선을 시원으로 하는 한민족의 역사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고려는 초기부터 조선을 시원으로 하는 역사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金光洙, 1986, 「高麗建國期—國家意識의 理念的 基礎」,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참조.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조선의 범주는 단군을 시조로 하는 《삼국유사》 수준의 고조선과 일정한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60)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6부의 조상을 조선의 유민으로 서술하고 있다.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1년 참조. 《삼국유사》에서는 《通典》에 근거하여 조선 遺民들이 70여국으로 나뉘어 마한·변한·진한을 이루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七十二國> 참조.
- 61) 龍朔 연간(661~663)에 당이 고구려를 침구했을 때 중군했던 張素智의 墓誌銘(697)에서 조선은 삼한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당의 고구려 정벌을 한의 [위만]조선 정벌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려고 한듯하다. <□周故上柱國張府君墓誌銘并序>

데 이후 위만의 이미지는 탈락되어 가고, 기자의 이미지는 확대되었다. 고려 인종 원년(1123) 송나라 외교사절의 한 사람이었던 서공의 《고려도경》과 인종 4년(1126)에 중국에서 제작된 〈華夷圖〉에서는 고려 역사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고 있다.

고려의 선조는 주나라 무왕이 조선에 봉한 기자 胥餘[箕는 封地, 胥餘는 기자의 이름이다로, 성은 주이다. 周·秦을 지나 한 고조 12년에 이르러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할 때 무리를 모아 椎結하고 와서 오랑캐를 복속시켜 차차 조선 땅을 차지하고 왕 노릇을 했다. 子姓이 나라를 차지한 지 8백여 년 만에 衛氏의 나라가 되었고, 위씨가 나라를 차지함이 80여 년이었다(《선화봉사고려도경》 권1, 건국, 始封).

遼海의 동쪽지역은 기자가 조선에 봉해진 것으로 인해 한나라 때는 낙랑 등의 4군이 설치되었다. 고려는 요동의 동쪽으로 천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東晉 이후 평양에 도읍하며 대대로 중국의 봉작을 받고 正朔을 승습했다(〈華夷圖〉(齊 阜昌 7년),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遼·附西遼·附齊)』, 北京圖書館金石組編, 各 1022-1).

이들 자료는 기자를 중심으로 고려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은 고려 역시 마찬가지였다. 외교적 수사라는 관점이 깔려 있지만, 金富佶(1071~1132)은 고려가 “예전부터 漢庭에 내속되어 있어 조선의 옛 일을 잊지 말기를 희망한다”<sup>62)</sup>고 했고, 묘청 일파가 인종의 서경 행차 때 龍堰宮에서 개최한 잔치의 치어에서도 기자의 유풍을 강조<sup>63)</sup>하고 있다. 또 鄭沆(1080~1136)은 고려가 “대대로 기자가 봉해진 곳을 守土하고 있

“君諱素智 …… 龍朔季中屬三韓作梗 憑凌鯤海之隅 九種孤恩旅拒狼河之外 君乃負霜戈 而報國直下朝鮮帶月羽以從軍 先權玄免 遂以謙自牧 不論大樹之功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唐-』, 北京圖書館金石組編, 法仁文化社, 誌 1662).

62) 《동문선》 권39, 表箋, 〈聘問〉(金富佶) 참조.

63) 《동문선》 권104, 致語, 〈西京龍堰宮大宴致語〉(金富佶) 참조.

다”<sup>64</sup>)고 했고, 김부식(1075~1151)은 고려가 “예부터 기자의 수봉한 곳으로, 위로는 신라 때부터 大漢에 신속하여 본국에 이르렀다”<sup>65</sup>)고 인식하였다. 〈華夷圖〉에서 소중화를 언급하고 있는 이규보(1168~1241)의 이해도<sup>66</sup>)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당 이래 중국의 여러 국가와 삼국·고려의 관계에서 기자의 동래와 조선후로 봉해졌다는 이해는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었고, 이것은 중국과 고려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고려의 속악 중에 하나인 〈西京〉에서 고조선이 기자의 封地였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sup>67</sup>)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095년 숙종이 즉위하면서 문종의 아들인 朝鮮國公 燾과 扶餘公 燾, 辰韓候 愉, 樂浪伯 瑛 등을 포상하는 조치에서<sup>68</sup>) 조선에서 비롯하여 부여, 진한 등으로 연결되는 역사인식의 단편을 읽을 수 있다. 인종 2년(1124) 이자겸과 그 부인은 ‘朝鮮國公’과 ‘조선국대부인’에 책봉되었다.<sup>69</sup>) 그렇지만 이를 단군에서 비롯하는 고조선과<sup>70</sup>) 선불리 관련지을 수 없다.

그런데 고려 전기에 이미 서북한 지역에서 단군이 지역의 신격으로 좌정하고 있었음도 확인된다. 구월산 三聖堂의 부속시설이었던 祈雨龍壇에서는 이미 목종 9년(1006) 이전에 비를 빌기 위한 국가제도가 〈祈雨龍壇儀注〉라는 규

64) 《동문선》 권31, 表箋, 〈賀年起居表〉(鄭沆) 참조.

65) 《동문선》 권34, 表箋, 〈謝許謁大明殿御容表〉(金富軾) 참조.

66) 《동국이상국집》 권17, 고을시, 「題華夷圖長短句」 “萬國森羅數幅牋 三韓隈若一微塊 觀者莫小之 我眼謂差大 今古才賢衰衰生 較之中夏毋多愧 有人日國無則非胡戎雖大猶如芥 君不見華人 謂我小中華 此語真堪採”.

67) 《고려사》 권71, 지25, 樂2, 속악, 〈西京〉 “古朝鮮卽箕子所封之地 其民習於禮讓 知尊君親上之義 作此歌 言仁恩充暢 以及草木 雖折敗之柳 亦有生意也”.

68) 《고려사》 권11, 숙종 즉위년 10월 경진 참조.

69) 《고려사》 권15, 인종 2년 7월 갑신 및 권127, 열전40, 이자겸 참조.

70) 이자겸과 그 부인의 봉호가 조선국이었다는 점에서 고조선과의 관련성, 특히 이자겸 조상들의 고향이 구월산이 위치한 信州이고, 부인 최씨(최사추의 딸) 역시 고죽국으로 비정되는 해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자를 단군조선, 후자를 기자 또는 단군조선과 관련하여 추측하기도 한다. 김창현, 2007, 「고려중기 예종·인종의 통치와 관료집단의 성격」, 『한국인물사연구』 8, 한국인물사연구회, 118~119쪽, 주 31) 참조.

정에 따라 운영되었고,<sup>71)</sup> 서경신·평양신이라는 평양의 신격으로 현종 원년(1010) 이전부터 자리하고 있었음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이때 단군은 기자 이전의 역사적인 존재로, 기자 이전의 조선이 어느 정도로 기억되고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단군기》·《단군본기》·《고기》 등의 자료를 통해 그 일단을 읽을 수 있을 뿐이다. 특히 《고기》·《단군본기》가 그 신화를 포함한 건국부터 멸망까지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고구려 동명왕의 이야기처럼 민간에서 일정 부분 전해져 오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고조선 멸망 이후 13세기 중엽까지 역사성의 대부분이 탈락된 상태에서 전해지던 고조선과 단군에 대한 기억은 급변하는 고려의 대내외 상황 속에서 주목되었고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국내의 정치 상황은 장기적인 몽고와의 전쟁과 강화로의 천도, 무인집정으로 이름뿐인 왕권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흉년과 전염병의 창궐 등으로 전국 각처에서 민란이 발생했고, 고려 이전인 삼국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움직임도 각 지역에서 나타났다.<sup>72)</sup> 더욱이 삼국 부흥의 움직임은 태조 이래 ‘一統三韓’의 역사적 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제국으로 자리한 원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강요받았다. 그것은 다원적 천하관을 지닌 황제국 고려의<sup>73)</sup>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원종 5년(1264)에 선행된 마리산 초례의 명분이었던 ‘三韓變爲震旦’은<sup>74)</sup> 이 같은 국내외의 상황을 일소할 수 있는 기제였다.<sup>75)</sup> 물론 여

71)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계유 참조. 이에 대한 주目は 강만길에 의해 이루어졌다. 姜萬吉, 1969, 「李朝時代の檀君認識」,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참조.

72) 민현구, 1989, 「고려중기 삼국부흥운동의 역사적 의미」,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82~108쪽; 이정신, 2000, 「12·13세기의 삼국부흥운동」, 『한신인문학연구』 1, 한신대 인문학연구소, 63~89쪽 참조.

73) 盧明鎬, 1997,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한국사연구회, 3~40쪽 참조.

74) 《고려사》 권26, 원종 5년 6월 경술; 《고려사》 권123, 열전36, 폐행, 〈백승현〉 참조.

75) 이에 원종은 봉은사에 모셔져 있던 태조 御眞을 찾아 그 대응책을 먼저 고하였다. 《고려사》 권26, 원종 5년 6월 을사 참조.

기에는 대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양, 기복의 목적 때문에 도참의 적극적인 연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 움직임은 삼한에 머물러 있던 고려의 역사인식을 고조선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명종 23년(1193) 《舊三國史》에서의 〈동명왕본기〉가 이규보에게 더 이상 괴력난신으로 ‘鬼’나 ‘幻’이 아니라 ‘聖’이며 ‘神’이었듯이<sup>76)</sup> 그 인식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로 확대되었고, 고려는 이미 고조선 때부터 중국과 別乾坤이었음<sup>77)</sup> 천명되었다. 고려 조정은 원의 세계제국 질서 속에서 사직을 존속시키기 위해 부마국 체제의 종속관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확대된 역사인식을 통해 고려사회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고 자국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며 이를 정리할 수 있었다.

고구려 건국신화보다 풍부한 神異 사실로 민간에 전해지던 내용들은 더 이상 괴력난신으로 이해되지 않았다.<sup>78)</sup> 《삼국유사》의 기이편 서문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삼국의 시조가 신이한 데서 나온 것이 더 이상 괴력난신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은<sup>79)</sup> 단적인 증거다. 동명왕 전승과 함께 민간에서 《고기》·《단군본기》 등을 통해 고구려 이전의 전승으로 전해오던 다양한 내용의 단군전승은 이제 역사적 사실로 수용되었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고려 역사의 출발로써 정립되었다. 일연과 이승휴가 위만조선 이전의 역사적 존재로 조선을 주목하여 고조선[전조선·후조선]을 설정하고 이를 일정한 체계에서 인식하려고 했던 것은 이 같은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두 자료의 찬자인 일연과 이승휴의 도참에 대한 입장이다. 도참과 교섭하며 전해졌던 《본기》 전승이 이후 고조선 건국신화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

76) 《동국이상국전집》 권3, 고을시, 〈東明王篇并序〉 참조.

77)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참조.

78) 반고가 개벽한 무인년부터 금나라 貞祐 7년(1219, 고종 6)까지 49,600여 년의 역사를 읊었다고 하는 吳世文의 《歷代歌》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유사》 권제3, 탑상제4, 〈迦葉佛宴坐石〉 참조.

79)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敍 참조.

다. 그렇지만 이들의 도참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일연의 경우에는 예종 때 十員殿 왼쪽의 小殿에 모셔진 부처 어금니 사리가 중국에서 고려로 오게 된 연유를 송 휘종의 불교 숭봉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국민들의 도참 유포에서 찾고 있고,<sup>80)</sup> 수나라 양제가 환생했다는 연개소문과 관련한 기록에서 고구려의 관직명인 蘇文을 설명하면서 도참 관련 자료인 《神誌秘詞》를 언급하고 있다.<sup>81)</sup> 이승휴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경계를 위해 지은 〈村居自戒文〉에서 국가의 안위, 조정의 득실과 함께 도참의 雜言을 입에 올리지 말 것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sup>82)</sup> 고작이다.

그런데 이승휴가 경계한 것은 도참 자체였기 보다는 이에 대한 논의 과정과 실행에 따르는 사회 혼란이었다. 그는 〈自戒文〉에서 역대 고려왕실을 중심으로 나라의 쇠운·중흥을 명분으로 지속된 연기비보책이 도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폐단을 지적했다. 그는 고려의 관인으로서 도참과 관련한 태조 이래의 각종 연기비보책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만연을 방관할 수도 없었다.<sup>83)</sup> 이것은 일연에게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고려 태조의 출생지인 광명사는<sup>84)</sup> 일연의 활동에서도 중요한 곳이었다. 그는 충렬왕 8년(1282)에 내전에서 국왕을 만난 후 광명사에 머물렀고,<sup>85)</sup> 이곳에서 국왕의 질환 퇴치를 위한 법회를 설행한 후 국존에 올랐

80) 《삼국유사》 권3, 제4 탑상, 〈前後所將舍利〉 참조.

81) 《삼국유사》 권3, 제3 흥법, 〈寶藏奉老普德移庵〉 참조.

82) 《동안거사집》, 잡저, 〈村居自戒文〉 참조.

83) 이승휴 역시 고려왕실의 출발을 용손에서 찾았고(《동안거사집》 행록4, 〈是月二十有八日 是皇帝聖節日也 ……〉), 《제왕운기》에서 〈고려세계〉를 상세하게 읊었다. 이것은 그가 용손과 관련한 고려왕실의 신성인식의 효용성을 긍정하였고, 龍孫十二盡說과 연계된 각종 풍수도참도 이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송악, 특히 왕건의 출생지[廣明寺]를 지리산천왕인 성모가 도선을 시켜 명당임을 알려주었다고 서술한 것에서 도참의 기능에 대한 이승휴의 이해를 짐작할 수 있다(《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 참조).

84) 광명사는 “고려 태조의 古基이자 도선의 지장을 심은 곳”이었다. 《속동문선》 권21, 錄, 〈遊松都錄〉(蔡壽, 1449~1515) 참조.

85) 《고려사》 권29, 충렬왕 8년 10월 임인 및 12월 을미 참조.

다.<sup>86)</sup> 즉 일연 역시 고려사회에서 도참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었다.

일연과 이승휴는 도참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고 있었고, 후자를 경계하였다. 도참과 관계를 유지하며 전승되어 온 고조선 건국신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고려 이전 역사의 실체를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의 역사인식체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단웅천왕의 손녀가 낳은 단군이 건국한 전조선의 역사를 고려 역사의 시원으로 설정한 《제왕운기》의 〈전조선기〉와 고조선의 전승지역을 고려사회에서 선가와 관련된 곳이거나 도참의 술사에게 길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으로 비정한 《삼국유사》의 〈고조선〉은 이런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한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중국 요임금의 그것과 비교하고 御國·享國의 햇수, 도읍의 변천, 사후 등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단군의 고조선 통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요건들이다. 또 단군과 부루·주몽의 혈연관계 설정은 후대 국가와의 역사계승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에서는 《제왕운기》가 《삼국유사》보다 진전된 인식을 보여준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있었다.<sup>87)</sup> 《제왕운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조선 건국부터 신라를 통합한 태조 18년(935)까지의 역년을 3288년으로 산출하여<sup>88)</sup> 고려가 고조선 건국부터 후대의 여러 왕조를 계승·통합한 국가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 단군부터 공민왕 12년(1363)까지의 역년을 3600년으로 파악한 백문보를<sup>89)</sup> 통해 볼 수 있듯이 고조선과 단군은 기자 이전의 역사적 존재로서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이런 점에서 평양지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충숙왕 12년(1325)에 제작된

86) 《고려사》 권29, 충렬왕 9년 정월 갑술 및 3월 경오 참조. 광명사는 숙종 때 승려 광器·주부 孫彌·진사 李震光 등이 음양서를 조작하다 발각된 곳이기도 하다. 《고려사》 권11, 숙종 6년 3월 경진 참조.

87) 신라[尸羅]·고구려[高禮]·남북옥저·동북부여·穢貊을 모두 단군의 후손으로 파악하고 있음에서 그렇다.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前朝鮮紀〉 참조. 이승휴는 삼한·부여를 서술하면서 이들 국가의 世系가 모두 단군에서 이어졌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88)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新羅紀〉 참조.

89) 《고려사》 권120, 열전25, 백문보 참조.

〈趙延壽墓誌銘〉에서 삼한에 앞선 역사적 존재로서 仙人王儉이 천 여 년을 넘게 장수하고 그 遺民이 당대까지 이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은 거듭 주목되어야 한다.<sup>90)</sup>

이 같은 분위기에서 소극적이거나 고조선 건국시조로서 단군의 최후에 대한 이해도 재검토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아사달산신이라는 단군의 최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괴력난신으로 치부되었던 신이한 사실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존재의 일반적인 최후와는 사뭇 달랐다. 현재적인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사달산신이라는 최후만으로 고조선 사회의 역사성을 밝혀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건국신화에서 시조의 출생부터 최후까지의 여러 내용들은 신성함을 증명하기 위해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단군의 최후인 아사달산신 역시 마찬가지다.

그 가운데 부루와 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언급하고,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을 단군의 아들로 단언한 것은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아사달산신으로의 최후는 아무리 건국신화의 신성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후계에 대한 전승과 부정함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역적인 사례이지만 구월산 三聖堂에서 天王으로 모셔졌던 檀因·檀雄·단군의 신격 중에 단군만 ‘父王’으로 호칭되었던 사실은<sup>91)</sup> 이미 고려 후기 이전에 삼성당에서의 전승이 단군에 대한 역사적 이해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역사의 출발인 고조선 시조로서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용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달산신은 삼국 시조의 최후인 승하 또는 薨, 그리고 능묘 조성과 분명 다른 전개였다.<sup>92)</sup>

90) 〈趙延壽墓誌銘〉(金龍善 編, 1993,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참조.

91)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기축, 李先齊 상소 참조. 이 상소는 조선 전기의 상황을 반영하지만, 삼성당의 제반 내용은 고려 후기까지 소급할 수 있다.

92) 고려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면서 箕子神을 국가제사로 정비하고 箕子墓를 탐색한 것은(《고려사절요》 권6, 숙종 7년 10월 참조) 고구려의 신앙체계에 용해되어 전해지던 기자 인식이 보다 진전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관

고조선의 도움으로 알려진 평양 부근의 檀君墓 전승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것은 단군이 역사적 실존인물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형성될 수 없는 유적이다.<sup>93)</sup> 단군묘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그 전거는 諺傳이었다.<sup>94)</sup> 언전이란 그만큼 자료적 신뢰가 적다는 의미이지만, 전승의 범위와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한다. 이보다 앞서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단군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앞 시기에서의 단군묘 전승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sup>95)</sup>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의 이 기록은 세조 2년(1456) 《팔도지리지》의 편찬을 위한 선행 작업인 《평안도지리지》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강동현에서의 단군묘 존재는 전승의 범위와 관계없이 이미 고려시대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오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계를 고려한 측면이 함께 작용하고 있지만, 서경에서의 고구려 관련 전승과 유적 정비의 과정에서 기자에 대한 인식 또한 정비되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자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단군과 관련한 전승 또한 점차 확인되고 이해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기자 숭배와 인식에 대해서는 한영우, 1982,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한국문화』 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56쪽; 이강한, 2010, 「1325년 箕子祠 祭祀 再開의 배경 및 의미」, 『한국문화』 5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26쪽; 최봉준, 2013, 「李穀의 箕子 중심의 국사관과 고려·원 典章調和論」,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305~337쪽 참조. 한편 箕子墓에 대한 전승이 숙종 7년(1102) 이전부터 古記類의 관계기록에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 견해도 있다. 박광용, 1980,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 『한국사론』 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참조.

93) 김성환, 2009,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12쪽. 역시 승천해서 내려오지 않은 고구려의 동명왕을 남겨진 玉鞭으로 龍山에 장사했다는 《구삼국사》의 기록(《동국이상국집》 권3, <동명왕편> 및 《제왕운기》 권하 참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명왕의 용산 장례에 대한 전승의 형성은 고구려 왕실이 천손의식을 공식화한 이후, 특히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일 것으로 추측한 견해도 있다. 이원배, 2009, 「고구려 시조명 ‘東明’의 성립과정」, 『한국사연구』 146, 한국사연구회, 13~20쪽.

9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5, 강동현, 고적 참조.

95)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강동현의 고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皇帝墓의 기록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그것과 비교하면, 전자에서는 황제묘와 단군묘에 대한 정보를 차중하여 황제묘에 함께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성환, 2009, 「세조의 평양 巡幸과 檀君墓」, 『한국사학사학보』 19, 한국사학사학회(김성환, 2009, 위의 책 재수록) 참조.

단군묘의 등장은 고려 후기에 고려 역사의 출발로서 재정립된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확장된 결과였다. 그렇다고 이 유적이 《삼국유사》·《제왕운기》의 출현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군·해모수·해부루·주몽 신화의 교섭, 그리고 그 결과라고 생각되는 혈연을 강조하는 의제적 부자관계의 설정 등과 관계된 것이었다. 안향이 충선왕의 원나라 친행을 부루의 도산 조화에 비유하고 있음과<sup>96)</sup>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승휴가 요동에서 부여 부마대왕묘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13세기 말~14세기 초에 고조선에 대한 여러 전승들이 역사적 사실로 치환되고 있다는 증거다. 고려 왕조의 기자 숭배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와 함께 단군묘 전승 또한, 고려 왕조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고려 전중기에 이미 도참 등과 관련한 일부 계층과 민간에서 형성·확대되고 있었을 것이다.<sup>97)</sup> 그리고 고려 후기 고조선이 재인식되는 과정과 함께 전승의 폭을 넓혀갔을 것이다.

## V. 고조선의 고토인 遼東에 대한 지평의 확장

고조선의 영역으로서 요동은 중국 측 자료에서 극히 단편들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이 조차도 고조선에 대한 역사성을 상실해가면서 망각되었고, 대중국 관계의 부침은 그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삼국사기》에서 선인왕검에 대한 기록이 고려시대의 서경을 지칭하는 평양과 관련하여 서술되고 있거나,<sup>98)</sup>

96) 《회헌실기》 권1, 시, 〈侍從忠宣王如元感諭〉 참조.

97) 김성환, 2008, 「단군전승과 檀君墓 - 고려시대 단군묘 전승의 가능성 모색」, 『역사민속학』 28, 한국역사민속학, 7~37쪽 참조.

98) 한편 성종 9년(990)에 국왕은 서경을 순시한다는 교서를 내리면서 서경을 遼城으로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 권3, 성종 9년 9월 기묘 참조). 이때의 遼城은 고조선, 고구려의 도읍으로써 요동의 평양에 대한 잔상으로 추측된다.

《삼국유사》에서 단군의 출생지부터 도읍지·산신지 등이 서북한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음은 그런 측면에서 위축된 고조선 역사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는 《제왕운기》 또한 벗어날 수 없다. 이 두 자료가 다원적 천하관을 지니고 황제국 체제를 운영하던 고려 전중기와 달리 원의 부마국 체제에 편입된 충렬왕·충선왕 때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요동에 기초하는 고조선의 영역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sup>99)</sup>

12세기 전반에 서국은 《고려도경》에서 고려의 영역에 대해 “남쪽은 遼海로 막히고 서쪽은 遼水와 맞닿았으며, 북쪽은 옛 거란 땅과 연속되고 동쪽은 금나라와 맞닿았다”고 그 대략을 서술했다. 예전에는 요와 경계를 하다가 요의 침공으로 압록강에 來遠城을 쌓아 요새로 삼았다고 하여 영역이 축소되었음도 밝히고 있다.<sup>100)</sup> 이미 고려의 북방 영역이 상당 부분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요동을 둘러싼 거란과 고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구려 역사와 영역의 계승 문제였다. 성종 12년(993)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와 소손녕의 답판은 유명한 사례이지만,<sup>101)</sup> 이후에도 이 문제는 양국의 외교에서 중심 사안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국의 역사 인식은 요동이 고구려의 영역이었음을 뛰어넘지 못했다.<sup>102)</sup> 역사계승인식의 문제였다.

이승휴는 원종 14년과 15년(1273~1274) 2차례에 걸쳐 원나라 사행을 하였다. 이때 그는 사행 과정에서 遼河의 강변에 전하고 있던 扶餘의 駙馬大王墓

99) 그렇다고 이들 자료가 <동명왕편>에서 이어지는 다원적 천하관을 전면 폐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100) 《고려도경》 권3, 성읍, 封境 참조. 그는 “압록강 서쪽에 또한 白浪·黃岩 두 강이 있고 頗利城에서 2리쯤 가다가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는데, 이것이 遼水”라는 서술로 미루어 압록강을 요수로 파악하고 있다(위와 같음). 또 고려 역사의 시원을 기자 800여년, 위만 80여년으로 서술하였다. 《고려도경》 권1, 건국, 始封 참조.

101) 고려의 북방 영역과 역사계승인식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는 추명엽, 2005, 「고려전기 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14~46쪽; 허인욱, 2008, 「高麗의 歷史繼承에 대한 契丹의 認識變化和 領土問題」, 『한국중세사연구』 24, 한국중세사학회, 105~135쪽; 박재우, 2013, 「고려전기 영토관념과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35, 한국중세사학회, 173~213쪽 등 참조.

102) 박재우는 이 역시도 관념적인 것이었다고 하여 ‘영토관념’이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박재우, 위의 글 참조.

를 지나며 賈耽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큰 평원의 남쪽 압록은 부여의 옛 땅이니 북부여는 요하의 강변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 개국은 대개 後朝鮮부터 지금에 이르렀을 것이다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漢四郡及列國紀〉).

그가 본 자료는 가탐의 《고금군국지》였을 것으로 보이며, 부여 부마대왕묘를 북부여 왕실과 관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승휴가 인식하고 있던 고조선(그의 이해에서는 전조선)의 영역관과 역사계승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북부여의 영역을 요하 일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부여는 《제왕운기》의 〈전조선기〉에 인용되어 있는 《본기》에서 단군의 후손으로 이승휴가 거론하고 있는 나라에서 빠져 있다.<sup>103)</sup> 하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이 비서갑 하백녀와 혼인하여 동부여의 부루를 낳았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역사계승인식의 문제에서 부여를 고조선(전조선)의 갈래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父子’의 의제적 혈연관계로 설정하고 있음은 부여가 고조선과의 관계에서 후대의 다른 국가와 달리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음을 뜻한다. 이 같은 기준은 부루와 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서술하고 있는 《삼국유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sup>104)</sup>

부여와 후조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위의 언급은 다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승휴는 단군이 10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은나라 무정 8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164년 후에 기자의 후조

103) 물론 〈漢四郡及列國紀〉에서 열국의 범위에 부여는 大國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 위와 같음.

104) 필자는 다른 연구에서 단군·해모수·부루·주몽 사이의 혈연적 관계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면, 고조선 이후의 국가들은 하나의 계통 아래에서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고조선-북부여-동부여로 연결되는 부루 계열, 고조선-북부여-고구려-백제로 이어지는 동명 계열, 고조선-삼한, 신라 계열, 또는 단군-해부루-우태-비류로 이어지는 비류 계열 등이 그것이다. 김성환, 2008, 앞의 글 참조.

선이 전조선을 이었음을 서술했다.<sup>105)</sup> 《삼국유사》와 달리 164년의 공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부여의 개국은 대개 후조선부터였을 것”이라는 서술에서는 전조선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부여로 계승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승휴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단군의 전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계승인식을<sup>106)</sup>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나라의 부마국 체제에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존의식은 고려의 사직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건국에 대한 ‘鬼’나 ‘幻’의 신이한 사실들이 ‘聖’과 ‘神’으로 재탄생하고, 중국과 天文도 다른 요하 동쪽의 별천지였던 고려가 조선을 이어 소중화로 알려졌다는 사실이<sup>107)</sup> 새삼 강조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는 고조선의 옛 영역인 요하 일대를 실제 지배하고 있던 원나라의 영향 아래 왕위계승권 자체도 그들에게 좌지우지되던 때였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고려왕들의 원나라 親行이 강요되었다. 특히 원과의 관계에서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들은 원 제국 질서에 편입되어 있다는 세계인식과 同文意識, 원 황실의 부마국으로서 왕권조차 위협받던 위기감에 대응하기 위한 자존의식과 독자적인 東人認識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원나라 세조는 고려에 영역·인구 등을 제외한 문화 등의 방면에서 ‘不改土風’을 보장하였다.<sup>108)</sup> 고려는 이를 중요한 논거로 확대해석하

105)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전조선기〉 참조.

106) 이승휴는 주몽이 盖斯水를 건너 마한의 王儉城에서 개국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고구려기〉 참조. 고구려의 마한계승인식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조법중, 1998, 「高句麗의 馬韓繼承 認識論에 대한 檢討」, 『한국사연구』 102, 한국사연구회, 47~74쪽; 김병곤, 2008, 「崔致遠의 三韓觀 再考」, 『한국사연구』 141, 한국사연구회, 51~82쪽 참조.

107)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地理紀〉 참조.

108) 원이 속국의 本俗을 인정해주는 통치방식인 ‘不改土風’에 대해서는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또 이를 둘러싼 원의 고려의 통치방식에 대해서는 森平雅彦, 2008,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東北アジア研究』 別冊1號, 島根縣立大學 東北アジア地域研究センター 참조.

며 이후 지속적으로 강요된 원의 요구에 대응하였다.<sup>109)</sup> 원이 고려에 인정하는 ‘토평’과 고려에서 해석하는 ‘토평’의 범위는 자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고,<sup>110)</sup> 고려왕조는 이를 고려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수호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였다.<sup>111)</sup>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고려 역사의 상한으로 고조선이 재정립되면서도 그 영역이 대체로 서북한 지역을 경계로 한정되고 있는 것에는 이런 관계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색은 “중국 요임금 무진년에 나라를 세운 朝鮮氏가 대대로 중국과 교통했지만 신하를 칭하지 않았고, 주 무왕의 봉함을 받은 殷太師 역시 신하를 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sup>112)</sup> 사실 이 시기의 箕子不臣說은 원 세조의 유훈인 불개토평에 기댄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인식의 확대에 따라 고려 역사의 시원으로서 고조선은 주목될 수 있었지만, 그 영역이었던 요동은 고려의 옛 영역으로 적극 인식되기 어려웠다. 그것은 원나라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압록강 서변에 위치해 있던 婆娑府를 경계로 고려와 원이 지니고 있던 영역의 변화 모습을 담고 있는 이색의 이해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색은 공민왕 3~4년(1354~1355)에 파사부를 원과 고려의 경계로, ‘華’와 ‘夷’의 경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1354년 여름 원의 전지에서 합격한 후 귀국길에 지었던 시 〈파사부〉에서 그는 당요의 무진년에 시작하여 臣僕하지 않던 고려의 역사를 읊으면서도 “鴨江東岸是吾土”라 하여 압록강을 경계로 양국의 영토가 구분된다는 축소된 영역인식을 보여주고 있다.<sup>113)</sup> 이것은 이듬해 3월 서장관으로 원에 가면서 파사부에서 다시 지은 시에서 “長吟豈獨華夷辨”

109) 이익주, 1995, 「高麗·元 관계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110) 이때 고려에서 이해하고 있던 토평의 범위는 고려 전기에 崔承老가 올린 시무 28조 중에서 중화제도로의 변화를 건의하면서 개혁 대상이 되었던 토평과 일치한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일정 부분은 상통한다.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 참조.

111) 최종석, 2013,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教自由」,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3~44쪽 참조.

112) 《목은문고》 권9, 〈送契符寶還詩序〉 참조.

113) 《목은시고》 권3, 시, 〈婆娑府〉 참조.

라 하여 그곳이 ‘華夷’의 경계지역이었음을 읊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sup>114)</sup> 그런데 공민왕의 반원정책이 실행되고 압록강 이서의 8站을 공략하여 파사부 등 3참을 깨뜨려 회복한 후인 1359년 겨울에 지은 시에서는 “近聞賊在婆娑府”라 하여 파사부가 고려의 영역에서 이해되었다.<sup>115)</sup>

더욱이 원이 쇠퇴의 조짐을 확실하게 보이고 그 영향력을 상실해가면서 이런 상황은 반전의 기미를 보이게 된다. 요동 수복을 명분으로 하는 東寧府 정벌이 그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고려는 기자를 계승한 나라라고 인식되었고,<sup>116)</sup> 그 영역인 요동 역시 마찬가지였다.<sup>117)</sup> 그런데 遼瀋 지역은 고려 말에 고려의 역사적 영역으로 점차 주목되었다. 그 중심에는 “조선의 苗裔를 이었다[祖朝鮮之苗裔]”는<sup>118)</sup> 조선에서 이어지는 고려의 역사계승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비록 이 사례에서 조선이 기자를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삼한에 머물러 있던 고려 전중기의 역사인식은 후기에 조선으로 확대되어 있었다. 즉 공민왕 19년(1370) 11월의 동녕부 정벌의 목적은 고려의 옛 영역인 遼瀋의 회복에 있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정벌의 당위성을 고유하면서 “요심은 본래 우리나라의 경계[國界]이고 그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백성”이라고 밝혀<sup>119)</sup> 원 간섭기에 위축되어 있던 요동에 대한 인식이 이때 이르

114) 《목은시고》 권3, 시, 〈婆娑府〉 참조.

115) 《목은시고》 권5, 시, 〈間在賊婆娑府〉 참조.

116) 《고려사》 권7, 문종 9년 7월 정사 “都兵馬使奏 契丹前太后皇帝 詔賜鴨江以東爲我國封境 …… 於是 致書東京留守曰 當國 襲箕子之國 以鴨江爲疆 ……”; 권 21, 신종 2년 5월 신축 “王受金詔於大觀殿 詔曰 昨土尙規 所以就傳於國政 象賢立德 亦惟安享於世封 粵箕子之故區 寔卞韓之舊壤 根本固而所庇者久 枝葉茂而其承者蕃 享茲世及之休 ……”.

117) 《고려사》 권9, 문종 26년 6월 갑술 “金悌還自宋 帝昉勅五道 …… 其五日 …… 箕子啓封 肇於遼左 ……”.

118) 《고려사》 권44, 공민왕 2년 6월 임자. 이와 같은 의미인 “世守朝鮮”(《고려사》 권 42, 공민왕 19년 5월 갑인), “國祖朝鮮”(《고려사》 권135, 열전 48, 신유 11년 9월) 등이 명 황제의 조서에서 확인된다. 또 조선이 이후 78개의 소국으로 나뉘었다는 고려의 인식(《고려사》 권45, 공양왕 원년 12월 계해; 《고려사》 권118, 열전1, 제신, 趙浚 참조)도 마찬가지다.

119) 《고려사》 권114, 열전, 〈池龍壽〉 참조. 요심 지역의 고려 백성에 대한 관심은 충렬왕과 공민왕 때 단편적으로 확인된다.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8년 8월; 《고려

러 咨文과 榜諭을 통해 선언되고 있다.<sup>120)</sup> 그 영역의 역사적 계승성이 고조선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가 요임금과 함께 건국되고 기자를 거치면서 遼河, 즉 遼瀋이 대대로 우리 강역”이었음이 분명하게 표명되었다.<sup>121)</sup> 이것은 전통적으로 고조선의 故地에 설치한 한나라의 군현 중에 하나인 玄菟를 염두에 두었던 사실<sup>122)</sup>의 확대임과 동시에 遼瀋이 고구려의 영토라는 사실에서 머무르지 않고 고조선의 영역이며, 고려는 그런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사실에 토대한 것이었다. 이 같은 고려 말의 확대된 영역인식과 아울러 고조선에서 비롯하는 개략적인 고려의 역사는 공민왕 때 개벽 이래 역대 제왕의 흥폐와 강역 離合의 사실을 정리했다는 羅興儒의 〈中原及本國地圖〉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123)</sup> 또 나홍유의 〈본국지도〉는 조선 태조 5년(1396) 李詹이 저술한 《동국사략》에서의 고조선 서술과 그 영역의 대략이 그려져 있었을 〈高麗圖〉<sup>124)</sup>와도 일정 부분 연결된다.<sup>125)</sup>

사》 권31, 충렬왕 23년 2월 기해; 《고려사》 권 32, 충렬왕 28년 8월 을유; 《고려사》 권39, 공민왕 8년 11월 갑진 참조.

120) “요심은 원래 우리나라의 舊界”, “遼陽은 원래 우리나라의 國界”라는 《고려사》의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고려사》 권42, 공민왕 19년 12월 정사 참조.

121) 《고려사》 권114, 열전27, 〈池龍壽〉 참조.

122) 고려 전기에 후당·후진·후주·송나라에서는 고려국왕을 책봉하는데 ‘玄菟州都督’을 상설하였고(《고려사》 권2, 태조 16년 3월 등 참조), 고려 역시 玄菟의 封疆을 계승했음을 밝혔다(《고려사》 권4, 현종 즉위년 12월, 병신 참조). 반면에 遼에서는 고려국왕의 책봉에 ‘玄菟州都督’을 제외하고 있으나, 여전히 玄菟는 대대로 고려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고려는 고구려의 주몽과 玄菟를 계승”했음이 언급되기도 하였다(《고려사》 권8, 문종 11년 3월 을유 및 19년 4월 계사 참조). 이것은 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려사》 권33, 충선왕 2년 7월 을미 참조).

123) 《고려사》 권114, 열전27, 羅興儒 참조.

124) 《동문선》 권92, 序, 〈三國圖後序〉 참조.

125) 이에 대해서는 별도 「조선 초기 《동국사략》의 고조선 인식」에서 다루고자 한다.

## VI. 맺음말

고조선의 존재는 중국 선진 시대의 자료에서 그 단편들이 확인될 뿐이다. 위만 조선과 관련한 자료로 추측되는 《魏書》를 통해 역사적 사실이 간명하게 정리되었지만, 그 역사상은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신화를 재연하는 의례의 반복 등을 통해 일정한 신앙체계에서 그 유민들에게 전승되었을 고조선 건국신화는 이후 같은 영역에서 건국된 범부여계, 특히 고구려 건국신화와 교섭하면서 단편적인 내용들이 전해질 수 있었다. 고구려왕이 주관하던 제천의례인 동맹을 그린 것이라고 파악되는 장천1호분의 수목숭배 모티브는 고구려의 신앙체계에 고조선의 문화적 습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역사성과 의미들은 점차 상실되었고, 그 내용은 고구려 문화에 침식되어 계속적인 변개와 탈락·보입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단군과 부루·주몽의 의제적 혈연관계, 태백산·웅신산 등 장소의 공유성 등은 그 잔편에 불과하다.

고구려의 고토 일부와 함께 역사계승인식을 가지고 있던 고려에서 고구려의 문화전통은 곳곳에 전해지고 있었고, 고구려 문화전통에는 고조선의 그것이 융해되어 있었다. 단군을 시조로 하는 고조선은 고려 전중기까지 고려에 앞선 역사체계로 분명하게 인식되지 못했지만, 고구려의 옛 영역을 중심으로 그 잔편과 장소들이 기억되고 있었다. 평양과 구월산 등에서 단군은 고구려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신격으로 모셔지고 있었고, 도참과 밀착되어 그 전승을 유지했다. 특히 수목신앙을 내용으로 하는 《본기》의 단군전승은 수덕의 운수관을 가진 왕조였던 고려를 목덕의 왕조로 바꾸기 위한 반란의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여기에서 역사성은 거의 탈락되어 있었지만,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계보, 건국자의 신성성에 가탁한 예언의 기능 등은 보강되어 고조선 건국신화는 전승될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하였다. 그렇지만 그 원형은 역사적 사실과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후한서》의 ‘故朝鮮國’ 용례 이후 ‘故朝鮮’과 ‘古朝鮮’은 중국 및 우리 자료

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했다. 중국과 삼국은 그 관계에서 기자와 위만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대외정책의 틀을 운영했다. 그런 가운데 위만의 이미지는 점차 탈락되었고 기자의 이미지는 확대되었다. 이 틀은 《고려도경》과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제작된 〈華夷圖〉에서 확인되듯이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한·당 이래 중국의 여러 국가와 삼국·고려의 관계에서 기자의 동래와 조선후로 봉했다는 이해는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런데 고려가 세계제국인 원나라의 부마국 체제로 편입되면서 고려의 입장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은 보다 강화되어야만 했다. 앞 시기의 다원적 천하관을 바탕으로 지어진 〈동명왕편〉에 흐르는 자주적인 분위기는 새로운 현실인식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고, 도참에 토대를 둔 ‘三韓變爲震旦’의 변전론은 삼한 이전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저술은 그 결과였다.

두 자료는 고조선의 인식론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고조선에서 출발하는 역사인식을 토대로, 이후 고려까지의 역대 국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神異한 이야기가 더 이상 괴력난신으로 치부되지 않고, ‘聖’과 ‘神’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는 원 세조가 고려에 밝힌 ‘不改土風’의 유지도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특히 두 자료의 찬자인 일연과 이승휴가 도참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후자를 경계하면서, 도참과 관계를 유지하며 전승된 단군전승에서 고조선 역사의 실체를 발견하고 이를 도참과 분리시키려 했다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아사달산신이라는 단군의 최후에 대한 이해도 고조선에 대한 역사 인식이 재정립되면서 새롭게 전환되었다. 건국시조의 최후가 산신이라는 점은 고조선의 역사성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조선의 도읍으로 알려진 평양 부근의 檀君墓 전승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단군묘 역시 재정립된 고조선 인식의 결과였다.

고조선 멸망 이후 고조선에 대한 역사성 상실과 대중국 관계의 부침 속에 그 영역에 대한 인식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삼국유사》에서 그 공간적 범위가 서북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제왕운기》에서 그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저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승휴는 요하 강변에서 전해지던 부여의 부마대왕묘와 그곳에서

의 북부여를 회고함으로써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계승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런 분위기는 원의 간섭에서 고려의 자존의식을 지키기 위한 현실인식과 결부되면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전통문화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불개토평이라는 원 세조의 유지도 함께 작용하였다. 원과의 관계에서 ‘華’와 ‘夷’, 원과 고려의 경계로 인식되었던 파사부가 공민왕의 반원정책 이후 고려의 舊界이자 國界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은 요심 지역이 고조선 이래 世守疆域이었다는 것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조선 멸망이후 그 고토를 계승한 고구려를 거쳐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고조선 건국신화의 전승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또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출현 이후 확대된 고조선 인식을 통해 고조선의 고토 수복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현실로 적용되었는지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고조선 이후 고조선 건국신화의 이해를 중심으로 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역사계승인식의 정립과정과 그 의미가 보다 깊이 있게 정리되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자료

-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이상국전집》, 《동문선》, 《동안거사집》, 《목은문고》, 《목은시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속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오주연문장전산고》, 《제왕운기》, 《청장관전서》, 《회헌실기》.
- 《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 《구당서》, 《사기》, 《선화봉사고려도경》, 《자치통감》, 《潛夫論》, 《통전》, 《後漢書》.
- 국사편찬위원회, 1995,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Ⅰ)』-高句麗·百濟·新羅-.
- 金龍善 編, 1993,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北京圖書館金石組編,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北朝-』, 法仁文化社.
- 北京圖書館金石組編,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唐-』, 法仁文化社.
- 北京圖書館金石組編,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遼·附西遼·附齊), 法仁文化社.

### 저서

- 김성환, 2002, 『高麗時代의 檀君傳乘과 認識』, 경인문화사.
- 김성환, 2009,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 노명호, 2012, 『고려태조 왕건의 동상-황제제도·고구려 문화 전통의 형상화』, 지식산업사.
- 신종원 엮음, 2005,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 申采浩, 1948,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 윤이흠 외, 1994, 『檀君; 그 理解와 資料』, 서울대학교출판부(1997, 증보).
- 전대준·최인철, 2010,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논문

- 강릉남, 1996, 「단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이해와 숭배」, 『력사과학』 1996-2.
- 姜萬吉, 1969, 「李朝時代의 檀君認識」,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 김광수, 1988,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역사교육』 43, 역사교육연구회.

- 김기홍, 2001,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한국사연구』 113, 한국사연구회.
- 김두진, 2000, 「단군에 대한 연구의 역사」,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 김병곤, 2008, 「崔致遠의 三韓觀 再考」, 『한국사연구』 141, 한국사연구회.
- 김병준, 2008,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50, 한국고대사학회.
- 김성환, 2012, 「강화도 단군전승의 성격」,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 김성환, 2013,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김창현, 2005, 「고려시대 평양의 동명승배와 민간신앙」, 『역사학보』 188, 역사학보.
- 김창현, 2007, 「고려중기 예종·인종의 통치와 관료집단의 성격」, 『한국인물사연구』 8, 한국인물사연구회.
- 김철웅, 2008, 「조선전기의 塹城醜禮」, 『도교문화연구』 28, 한국도교문화학회.
- 김철웅, 2012, 「강화도 참성(塹城) 초례문(醜禮文)의 분석」, 『동아시아古代學』 28, 동아시아고대학회.
- 盧明鎬, 1997,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한국사연구회.
- 민현구, 1989, 「고려중기 삼국부흥운동의 역사적 의미」,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 박광용, 1980,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 『한국사론』 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박대재, 2001, 「《三國遺事》古朝鮮條 인용《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한국사연구회.
- 박재우, 2013, 「고려전기 영토관념과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35, 한국중세사학회.
- 서영대, 2003, 「高句麗의 國家祭祀－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0, 한국사연구회.
- 서영대, 2009, 「한국 고대의 제천의례」, 『한국사시민강좌』 45, 일조각.
- 서영대, 2012, 「중국학계의 단군 연구와 그 비판」, 『고조선단군학』 27, 고조선단군학회.
- 송호정, 2012, 「先秦文獻에 기록된 古朝鮮 사회와 주민집단」, 『역사와 담론』 61, 호서사학회.
- 심재훈, 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詩經』 韓奕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윤상렬, 2014, 「고구려 前期 신성관념의 성립과 정착과정」, 『高句麗渤海研究』 48, 고구려발해학회.

- 이강한, 2010, 「1325년 箕子祠 祭祀 再開의 배경 및 의미」, 『한국문화』 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이기동, 2000, 「북한에서의 단군연구와 그 숭앙운동」,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 이성규, 2003,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시민강좌』 32, 일조각.
- 이익주, 1995, 「高麗·元 관계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정신, 2000, 「12·13세기의 삼국부흥운동」, 『한신인문학연구』 1, 한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이준성, 2013, 「고구려 國中大會 東盟의 구성과 축제성」, 『역사와 현실』 87, 한국역사학회.
- 이필영, 1996, 「檀君神話認識의 諸問題－學史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 한국고대사학회.
- 丁仲煥, 1977,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對하여」, 『大邱史學』 12·13 합집, 대구사학회.
- 조법중, 2005,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단군 인식 검토－한국 고대 동물숭배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조선단군학』 12, 고조선단군학회.
- 조법중, 2012, 「단군 연구사 검토 및 역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조우연, 2011, 「고구려 祭天儀禮의 전개」, 『高句麗渤海研究』 41, 고구려발해학회.
- 채미하, 2009,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4, 동북아역사재단.
- 최종석, 2013,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教自由」,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 추명엽, 2005, 「고려전기 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 한영우, 1982,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한국문화』 3,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허인욱, 2008, 「高麗의 歷史繼承에 대한 契丹의 認識變化와 領土問題」, 『한국중세사연구』 24, 한국중세사학회.
- 今西龍, 1910, 「檀君의 傳說につきて」, 『歴史地理』(朝鮮號), 日本歴史地理學會.
- 今西龍, 1929, 「檀君考」, 『靑丘學叢』 1(1937, 『朝鮮古史의 研究』 재수록).
-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5-4, 東京大史學會.
-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學會雜誌』 28(1970, 『白鳥庫吉全集』 3 재수록).
- 森平雅彦, 2008,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東北アジア研究』

別冊1號, 島根縣立大學 東北 アジア地域研究センター.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史料批判の再検討」, 『韓國文化』  
4-6.

齊藤忠, 1987, 「集安角抵塚壁畫の熊と虎の畫」, 『東アジア葬制の研究』 第一書房(김  
진광 역, 2009, 「집안시 씨름무덤 벽화의 곰과 범 그림」,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孫猛, 2005, 〈淺談‘日本國見在書目錄’〉(tangsong.blog.hexun.com.tw/1993873\_  
d.html).

## [국문 초록]

##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김성환

단편적으로 중국 선진 시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고조선 관련 기록을 제외하고 고조선은 멸망 이후 그 존재조차 잊혀갔지만, 고조선 건국신화는 이후 다른 국가의 건국신화와 교섭·착종되며 단편적으로 전해졌다. 그 중심에는 부여계 국가들이 있었고, 고조선 건국신화는 각저총에서의 곰과 호랑이, 제천의례인 東盟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 장천1호분에서의 수목숭배 모티브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구려에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내용은 고구려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침식되어 점점 변개와 탈락 등이 심해졌다.

고구려의 역사계승성을 지니고 있던 고려의 곳곳에서는 고구려의 문화전통이 전해지고 있었고, 거기에는 고조선의 문화전통이 용해되어 있었다. 고조선은 고려 전중기까지 고려에 앞선 역사체제로 분명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단지 그 단편의 내용과 장소들이 옛 고구려 지역을 중심으로 기억되었다. 평양과 구월산에서 단군은 지역의 신격으로 모셔졌다. 그리고 도참사상과 밀착되어 전승이 유지되었다. 고조선의 역사성은 거의 탈락되었지만,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계보, 건국자의 신성성에 가탁한 예언의 기능 등은 보강되었다.

《후한서》의 ‘故朝鮮國’ 용례 이후 ‘故朝鮮’과 ‘古朝鮮’은 중국 및 고려의 자료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고려 이전에 중국과 삼국은 그 관계에서 기자와 위만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대외정책의 큰 틀을 운영하였다. 그런 가운데 위만의 그것은 탈락되고 기자의 이미지가 확대되었다. 이 틀은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원나라의 부마국 체제로 편입된 이후 고려의 입장에서 자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은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앞 시기의 다원적 천하관은 당연히 계승되었고, 도참에 토대를 둔 ‘三韓變爲震旦’의 변전론은 삼한 이전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저술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원 세조가 고려에 밝힌 ‘不改土風’의 유지도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특히 일연과 이승휴는 도참의 역기능을 경계하면서도 그 관계에서 전승되어 온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역사적 실체를 발견하고 이를 도참과 분리시키려 하였다. 아사달산신으로의 좌정이라는 단군의 최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도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재정립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 고조선의 도움으로 알려진 평양 부근의 檀君墓 전승은 이런 배경에서 형성되었다. 단군묘의 등장은 고려 역사의 출발로서 재정립된 고조선 인식이 확장된 결과였다.

고조선에 대한 역사성 상실과 대중국 관계의 부침 속에 그 영역에 대한 인식 역시 위축되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는 그 공간적 범위가 서북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승휴의 단편에서 확인되듯이 遼瀋 지역에 대한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 계승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말 원나라와의 관계에서 ‘華’와 ‘夷’의 경계였던 파사부가 공민왕의 반원정책 이후 고려의 舊界이자 國界로 이해되었던 것은 요심 지역이 고조선 이래의 世守疆域이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다.

## 주제어

고조선, 고조선 건국신화, 고구려 전통문화, 《삼국유사》, 《제왕운기》, 遼瀋

**[ABSTRACT]**

## The Transmission of Ancient Joseon's Founding Myth and the Perception of Ancient Joseon

Kim Sunghwan

In contrast to documents dealing with Ancient Joseon as a developed nation, fragmentary though the record may be, Ancient Joseon's destruction seems to have been left out of all written records. Yet, the myth surrounding Ancient Joseon's founding has been fused with that surrounding the rise of subsequent nations and, thus, pieces of its content were able to be transmitted down through the ages. The surviving mythology seems to be centered in the Buyeo period, particularly in the northern and eastern regions of the nation. Also, in the Gakjeochong tomb(which displays a portion of a Goguryeo tomb mural portraying a wrestling match) one can see the images of a bear and a tiger as well as images of the Dongmaeng royal festival, including similar scenes on the first of the Jangcheon tomb murals which also show the images of a bear and forest deities. From this we can gather that the myth was also passed down to Goguryeo. Still, during this process, the central historical fact and meaning within the legends of Ancient Joseon's founding was corroded and gradually lost with the influence of Goguryeo's own myth, the original elements changing and being dropped as it was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Goryeo inherited the historical succession of Goguryeo, and Goguryeo's cultural traditions were spread throughout its ancient territories. Ancient Joseon's cultural traditions, therefore, were fused

with those of Goguryeo. Ancient Joseon could not be clearly perceived within the historical framework of Goryeo's early and middle periods. It could only be recalled in fragments of literary content and in locations centered in Goguryeo. Tangun was enshrined as a regional deity in Pyeongyang and on Guwolsan mountain. The historicity of Ancient Joseon might seem to have been almost entirely eradicated, but the sacred pedigree and connection to heaven of its builders were strengthened through the function of the divinations appropriated for this purpose. Combining the faith surrounding the founding of Ancient Joseon with the science of divination was a necessary factor of the founding's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but this meant that its integrity could not be preserved and that the legends could only continue to be further separated from historical fact.

Subsequent to the recording of Gojoseon-guk(故朝鮮國) in *Houhanshu*, 'Gojoseon(故朝鮮, 古朝鮮)' makes intermittent appearances in Chinese and Goryeo documents. Before this, Goryeo carried out a foreign policy within the framework of a contrast in the display of the images of Gija and Wiman. As time passed, Wiman's image was omitted and Gija's was expanded, a policy that continued throughout the Goryeo period. Rather than emphasizing Goryeo's sense of independence, however, this policy should be considered as belonging within the context of its status in Yuan China's system of rule by son-in-law("Buma nation" rule). The earlier period of hegemony had been passed down, and on the earlier basis of divination the transformation theory "Samhan will transform into Jindan(三韓變爲震旦)" awakened interest in the history prior to the Samhan period and made possible the compilation of *Samguk yusa* and of *Jewang ungi*. Here, also, an "admonition not to change established Goryeo tradition(不改土風)" by

Kublai Khan and Yuan China had a definite effect. On this point, especially, Ilyeon(一然) and Yi Seung-hyu(李承休), who wrote *Samguk yusa* and *Jewang ungi*, respectively, knew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inherent in divin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as they guarded against the latter while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ends of national founding and the divination stories, they tried to discover the true history behind the myth of the rise of Ancient Joseon that had been passed down by separating it from the divination narrative.

The Asadalsan mountain deity, the latest of the traditional methods to understand Tangun, has undergone a recent transformation even as it has changed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toward Ancient Joseon. It was forme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transmission of the legend of Tangun's grave in the vicinity of Pyeongyang, which was said to be the capital of Ancient Joseon. The appearance of the legend was a result of the expanded historical consciousness of Ancient Joseon within the nation, which had thus recently started to consider Ancient Joseon to be the starting point of Goryeo's history.

Between the loss of the sense of Ancient Joseon's history and the vicissitudes in its relations with China, the nation's consciousness of its sacred territories withered. *Samguk yusa* and *Jewang ungi* limit their descriptions of the sacred locations to the northwestern region and are unable to provide a positive understanding of these territories. Even so, from these works one can confirm the existence of a historical consciousness remembering and connecting Ancient Joseon, Buyeo, and Goguryeo with the Liaochen(遼瀋) region from fragments of Yi Seung-hyu's writings. Still, Kublai Khan's admonition extended only to the traditional and cultural sphere within the context of Goryeo's

relationship with the Yuan dynasty. As far as that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the Yuan dynasty went, after King Gongmin's anti-Yuan policies took effect in the Posuofu(婆娑府) region, which formed the border between the "Hua(華)" and the "Yi(夷)", Goryeo's former ancient borders were immediately re-recognized as its present rightful borders based on the region of Liaochen being recognized since the time of Ancient Joseon as having to be defended by every generation.

#### Keywords

Ancient Joseon, Ancient Joseon's founding myth, Goguryeo's cultural tradition, *Samguk yusa*, *Jewang ungi*, Liaochen(遼瀋)